

#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원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서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부로 종결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sup>1)</sup>의 후속 논의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 개발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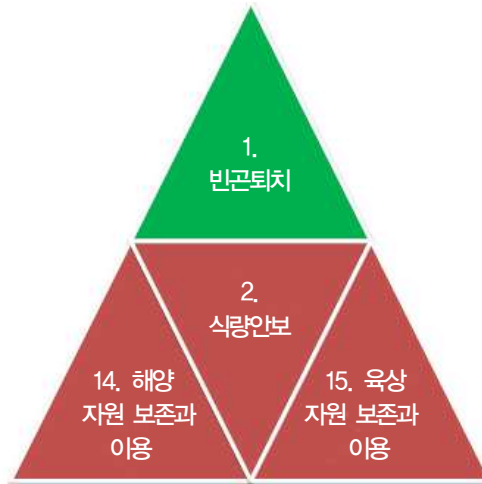
SDGs는 기존의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주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통합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17개의 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체화 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내에 각 목표별 측정지표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이라는 SDGs의 큰 기조 아래, 대부분의 목표가 농림수산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인 농림수산 분야 개발 목표를 꼽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농림수산관련 핵심 개발목표들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 연계성을

\* (jewon@krei.re.kr). 본고는 각 국제기구에서 출간된 전략서 및 관련 보고서 등에 언급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1) MDGs는 2001년 UN에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해 채택한 공동 의제로,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최초로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공동 목표 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그림 1 농림수산관련 핵심 개발목표



자료: KOICA(2015a).

보인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 14목표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과 제 15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달성은 제 2목표인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세부목표 및 지표 달성의 토대가 되어, 제 1목표이자 SDGs의 기본전제가 되는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각 목표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이거나 층위적인 관계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계 혹은 선순환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선행 목표인 MDGs와 마찬가지로 SDGs는 다양한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상호 연대를 강조하며, 이를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sup>2)</sup> 개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및 목표달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행과정 및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이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목표 이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제 17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2. 국제기구별 대응전략 및 동향

### 2.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은 전 세계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왔다. MDGs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Post 2015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UN은 2014년에 UN 지속가능발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나갈 개발의제를 천명하였다. 다양한 UN 산하기구 및 자문기구들은 각 목적 및 전문분야별로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Post-2015 체제에 대비하여 2012년 리우 지속가능발전총회에서 SDGs 도입에 합의하고 지속발전가능 발전에 대한 정치적 선언 및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공개작업반은 본격적으로 SDGs 수립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목표 설정 과정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40여개의 UN 산하기구들은 SDGs 의제 개발 및 전문 분석자료 제공을 위해 UN 내부 기술 지원팀(UN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TST)를 결성하였다. 기술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총 29개의 분야에 대해 이슈 브리프(Issue Brief)의 발간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농림수산분야와 연관된 이슈는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식량 안보와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사막화, 토지 황폐화 및 가뭄(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감소(Climatic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대양과 바다(Oceans and Seas), 숲(Forest),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보고는 각 분야의 현황 파악 및 MDGs 달성 여부 점검, 분야별 문제점 해결 및 개선을 위해 SDGs 목표 설정에 반영할 만한 제안점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개작업반이 SDGs 핵심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UN 산하기구 중,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구들은 농림수산분야 관련 목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를 제시하고 SDGs의 목표 및 지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

3) UNTST(2014). TST Issues Brief: A compendium of issues brief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등은 위의 TST의 일원으로 속해 해당 분야의 이슈브리프를 공저하고, SDGs의 목표치 및 측정 지표가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SDGs 초안 발표 이후 이어지는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에서 해당 목표와 지표의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SDGs가 보다 많은 개발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넓은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SDGs 관련 분야 현황과 목표 달성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석 보고서나 이슈 페이퍼를 꾸준히 발간하여, 관계자들이 SDGs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농업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설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UN 내 기구들의 기술적 지원 외에도, 보다 많은 개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UN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부터의 조언도 수렴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프리 삭스가 이끄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이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8월 발족한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조직이다. SDSN은 위의 설립 목적에 따라 Post-2015 관련 논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왔으며, 지도의사회(Leadership Council) 아래 국가별 SDSN 지부(Chapter) 조직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DSN은 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12개의 테마 그룹(Thematic Group)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액션 어젠다(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SDGs의 주요 개발 목표 및 세부목표를 확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본 어젠다에서 제시된 10개의 우선 목표 중, 제 1목표인 ‘기아 등 극심빈곤의 퇴치(End extreme poverty including hunger),’ 제 6목표인 ‘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Improve agricultural systems and rural productivity)’은 농림수산분야와 관련된 내용이다.

SDGs 주요 개발목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SDSN은 각 목표별 달성지표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6월, SDSN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지표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 각 목표의 국제사회 및 국가 단위의 달성지표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그 중 농림수산분야와 연관된 세부 목표 및 이행수단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표 1 농림수산물 관련 세부 목표, 이행수단 및 측정 지표 제안

목표	세부 목표 및 지표
<p>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p>	<p>1.1 2030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현재 하루 \$1.25 이하 인구 기준)                      1.2 2030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                      1.3 각국별 사회보호시스템 및 정책을 이행,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1.a 빈곤퇴치활동 투자 가속화 지원을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빈곤 종식을 위해 개발협력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1.25 (PPP) 이하의 인구 비율</li> <li>• 다차원 빈곤 지수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li> <li>• 국가의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li> <li>• 토지, 재산, 자연자원의 소유권을 보호받는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 공동체 비율</li> <li>•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li> <li>• 총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li> <li>• 기후변화 혹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한 자연 재해에 대한 손실 (US\$, 피해자 수)</li> </ul>
<p>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p>	<p>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장애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충족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치 및 농업 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인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농가 농업생산성 및 소득 2배 증대                      2.4 2030년까지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 생태계 유지, 재해 적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식량생산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적 자원 및 지식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농업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해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에너지 섭취량 이하 인구 비율</li> <li>• 가임기(14-49) 여성의 빈혈 발생률</li> <li>• 5세 미만 아동 급성 및 만성 영양결핍(저신장, 저체중)</li> <li>• 6개월 이하 영아 모유수유 비율</li> <li>• 10개 식품군 중 최소 5개 소비 가임기(14-49) 여성 비율</li> <li>• 작물 생산을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수확량 비율)</li> <li>• 농민 1000명당 농업지도사의 수(농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 농민의 비율)</li> <li>• 식량시스템에서 질소 이용 효율</li> <li>• 작물 물 생산성(단위 관개량 당 수확량톤) - 논의 중</li> </ul>
<p>14.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p>	<p>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을 포함한 육상 활동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예방 및 대폭 경감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해양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및</p>

(계속)

목표	세부 목표 및 지표
	<p>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조치</p> <p>14.3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p> <p>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무허가·규정 외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고 최대한 지속가능한 수획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어류자원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 시행</p> <p>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의 보존</p> <p>14.6 2020년까지 과잉생산과 남획을 조정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불법 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 폐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금 제한</p> <p>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여 SIDs과 최빈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p> <p>14.a 해양 건전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 특히, SIDs과 최빈국의 해양 생물다양성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해양기술이전</p> <p>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p> <p>14.c 『UN 해양법협약』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연안 보호구역 비중</li> <li>• 지속가능한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li> </ul>
<p>15. 육상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p>	<p>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시스템 특히 숲, 습지, 산림 및 건조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조약과 법규 하에 보존, 복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p> <p>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숲에 대해 산림파괴 방지, 글로벌 수준의 재녹화를 확대 등 지속가능한 관리 실행 권장</p> <p>15.3. 2020년까지 사막화, 가뭄, 홍수 등으로 황폐화된 땅과 토양 복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가 없는 지구 성취</p> <p>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포함, 산(mountain) 생태계 시스템의 보존</p> <p>15.5.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자연적 서식처 파괴를 줄이는 긴급하고 유의미한 행동 채택,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의 멸종 방지</p> <p>15.6.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보장</p> <p>15.7. 불법 야생생물의 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보호 종의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는 긴급한 행동 채택</p> <p>15.8. 2020년까지 물 생태계시스템에 대한 외래침입종의 유의적인 영향 감소, 방제, 박멸 및 유입 방지 수단 도입</p> <p>15.9.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계획, 개발 프로세스, 빈곤 감소 전략 및 회계 등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통합</p> <p>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위하여 모든 자원 및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유의적으로 증진</p> <p>15.b. 지속가능한 숲 관리에 재정 지원 등 각종 유의미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재녹화와 보존 등 선진적 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p> <p>15.c. 보호종에 대한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적 자원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 지역과 경작지 면적의 연간 변화</li> <li>• 지속가능한 숲 관리 하의 숲 면적 비율</li> <li>• 황폐화되거나 사막화된 농토의 연간 변화(% 또는 ha)</li> <li>• 멸종 위기종 목록 지수(Red List Index)</li> <li>• 생물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면적</li> </ul>

주: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 표에는 국제 공통 지표만 나열하고 국가별 보완 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보다 자세한 지표 목록은 UNSDSN의 본문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 UNSDSN(2015a), KOICA (2015b) 참고하여 재구성

---

SDGs 관련 세부 목표 및 측정 지표들은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s, UNSD)에 의해서도 검토된 바 있으며, 현재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에서 2015년 5월 발족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Inter-agency Expert Group, IAEG-SDGs)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이행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이다. SDSN은 SDGs와 관련한 보고서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IAEG측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지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SDSN은 정부 및 학계를 비롯한 SDGs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핵심목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에 발간된 “SDGs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가이드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Stakeholders)” 보고서에는 지난 MDGs의 교훈 및 시사점을 비롯하여, SDGs의 기본이념 및 핵심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해당사자의 역할 및 제도 정비,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 및 로드맵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SDGs 형성 초기 단계에서 목표 이행에 필수적인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UN은 SDGs의 성공적인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DGs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여, 포용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하고 있다.

## 2.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주요 선진국들을 회원국으로 삼아 개발도상국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OECD는 주요 국제기구이자 공여기구 중 하나로서, UN의 Post-2015 아젠다와 SDGs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국가별 정보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의 대응전략과 태도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관련 분석, 도구 및 접근에 대한

통찰(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보고서에서 OECD는 7가지 방안을 통해 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4)</sup> 그 중 세 번째 방안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개발 지원’에서는 OECD가 농촌개발 및 도시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기반의 농촌개발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국가가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식량 안보 및 역량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네 번째 방안 ‘지구의 지속가능성 보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해 OECD에서 연구 및 시행 하고 있는 세금 징수 프로그램과 관련 협의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16년 2월에 발간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에서는 UN에서 제시한 SDGs 핵심목표에 기반하여, 향후 OECD가 SDGs 달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 및 지원을 수행할지와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OECD는 조직

표 2 SDGs 대응 OECD 액션 플랜

1. OECD 프로그램 및 기존 전략에 SDGs의 관점 적용
- 모든 위원회에 SDGs 이행 및 점검에 기여할 것을 독려 SDGs 프레임워크를 OECD의 연구보고서에 점진적으로 적용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Pisa for development, BEFS measures)을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에 적용
2. SDGs의 이행정도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회원국들이 특정분야에서 수행해온 성과에 대해 출간하고 공유 SDGs에 대한 국가의 초기 준비태세에 대해 평가 데이터 부족문제 해결 및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SDGs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3. 국가단위의 포용적 정책결정 및 계획을 지원하고 SDGs에 대해 정부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다차원 국가 평가를 보완 및 적용하여 개별국가가 개발계획에 SDGs의 핵심 목표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유도 SDGs와 연관된 국가 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 개선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간 경험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여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SDGs 수행을 지원
4. OECD의 대외협력관계를 고려한 SDGs 이행
UN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OECD의 참관인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함 OECD의 지역 프로그램이 2030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OECD 글로벌 포럼을 통해 SDGs 이행 관련 경험을 공유 OECD와 파트너 국가 간의 정책 대화가 SDGs 유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섹터 및 주제 기반 포럼 개최

자료: OECD(2016a).

4) 7가지 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독려, ②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투자 장려, ③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개발 지원, ④ 지구의 지속가능성 보장, 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⑥ 정보접근성 및 역량 강화, ⑦ 평가 및 팔로우업(follow up) 매커니즘 활성화.



---

의 강점으로 축적된 국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 정도 측정과 정책적 자문 및 전문 지식 제공, 특정 섹터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나 파트너십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OECD의 액션 플랜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3월 OECD가 개최한 제8회 글로벌 개발포럼은 ‘SDGs의 합의부터 실제 이행까지: 정책, 자료 및 재원조달(From Commitment to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Policies, data and financ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어떻게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최적화 할 수 있는지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과 지역 이니셔티브 기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농업농촌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 개발도상국을 위한 툴킷(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보고서가 공개되어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SDGs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 개발전략의 구성 및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참고할만한 농촌개발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농촌개발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는 OECD의 SDGs 관련 논의에서 농업농촌분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위의 액션플랜에서 언급하였듯 OECD가 본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국가 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2.3. 세계은행/다자간개발은행(World Bank/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MDB)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경제개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개발목표와 비교하여 SDGs가 더 많은 분야의 개발목표를 포함하게 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재원의 조달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다자금융기구들은 개발재원의 패러다임 전환 및 규모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가 주를 이루는 개발재원의 한계를 자금원 및 투자방식의 다양화, 특히 민간자본의 유인으로 극복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기구로서 세계은행이 SDGs의 달성을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은 2015

년 10월에 열린 제 91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본 선언문에서는 주로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협력과 SDGs 핵심목표와 관련된 분야(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재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효율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개발재원의 확충을 위해 3년간 양허성, 비양허성 자금을 포함한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SDGs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다자은행의 개발재원은 SDGs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투자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에 향후 은행들의 우선순위 및 자금 운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각 국가별로 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재정적 요인을 밝히고 이를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한 재원 증가방안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국가 진단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를 발표하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단계별 흐름은 아래와 같다.

표 3 국가 진단 프레임워크의 주요 단계

단계	내 용
1단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각각의 SDGs에 대한 해당 국가의 현재 진행 정도를 벤치마킹 • SDGs의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Cross-country 회귀분석을 활용
2단계	2030년까지 각 SDGs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BAU: Business as Usual) 예측되는 결과를 전망
3단계	각 SDGs와 관련한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여지에 대해 논의. SDGs 진행을 가속화하는 정책 변화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가능하게 함. • 지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현재 수준의 다양한 SDGs 결정요인을 벤치마크함. GNI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SDGs 결정요인을 파악
4단계	각 SDG 중점분야(priority)와 관련된 지출 및 재원 증가방안 논의

자료: KIEP(2015).

이외에도 다자금융기구들은 SDGs 달성을 위한 향후 재원확충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원흐름을 형성하여 세금, 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선례로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인 G20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20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재원조달 방안은 장기적인 재원

---

흐름 및 유동성, 특정 개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채권 및 부채 관련 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청정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채권(Carbon Bonds)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지급되는 조건부 차관(Contingent Loans)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국가차원의 위협이나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의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위기관리 방안으로, 다양한 국가 상황에 기반한 보증제도, 파생상품, 혼합재원(blended finance)이 그 예에 해당한다. 마지막 방안은 성과에 기반한 융자(Result-based Financing, RBF)로 정해진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cash transfer)이나 민간재원은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풀 매커니즘(Pull Mechanism)을 예로 들 수 있다. 선례로, 소규모 농가의 식량 안보 문제와 관련 분야의 R&D 연구를 결합한 AgResults 이니셔티브<sup>5)</sup>가 존재한다.

### 3. 시사점 및 결론

위의 세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국제기구들은 각자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살려 SDGs의 성공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의 경우 유일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개발의제 및 핵심 목표, 측정 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많은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OECD는 각국의 다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 기구로서,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 제공과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기관의 액션플랜을 수립 및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로서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확대 및 추가 조달을 위해 논의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세 조직은 각자 다른 역할을 자처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이다.

한국 또한 여러 개발 주체 중 일원으로서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SDGs 목표체계와 일치하면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납득할만한 범국가적인 목표체계 및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관련 계획수

---

5) (<http://agresults.org/>).

립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OECD의 경우에서 언급되었듯, 한국의 농정발전 경험은 농업농촌개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므로, 국내에서 먼저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자랑하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KIEP. 2015.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KIEP.
- KOICA. 2015a. 제29회 개발협력포럼 농림수산분야 토론자료. (2015. 11. 23). KOICA.
- KOICA. 2015b.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 OECD.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OECD.
- OECD. 2016a. 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 OECD. 2016b. 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 UNTST. 2014. TST Issues Brief: A compendium of issues brief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TST.
- UNSDSN. 2014. 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SDSN.
- UNSDSN. 2015a.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SN.
- UNSDSN. 2015b.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Stakeholders. UNSDSN.

### 참고사이트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지식플랫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UN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 (<http://unsdsn.org/>)
-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s://www.oecd.org/>)